제로원의 원리와 제3복, 액션

(빌 1:20~24)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로원의 원리와 제3복, 액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뻔 했다'라는 말을 스스로 해 보셨습니까? 들어보시기는 했을 거예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죽을 뻔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뻔 했다는 말은 위험한 일을 당해서 정말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나서, 아, 다행이다, 정말 잘됐다 할 때 쓰지요.

버스에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정해서 생각할 때. 그런데 몇몇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중에 내가 살아났을 때, '죽을 뻔 했다', 다섯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내가 속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 정말 운이 좋다'고 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뻔 한 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 불행이지만- ~ 뻔 한 것은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살 뻔 했다' 고 하는 말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어휴, 하마터면 살 뻔 했어!" 못 들어 보셨고 하지도 못하실 것이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못 들어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살 뻔 했다'라는 말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 뻔 했다'라는 말은… 들어볼 수가 없는 말이죠.

'살 뻔 했다'라는 말은 죽는 것을 좋아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죽을 뻔 했다는 말은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길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살 뻔 했어' 하는 말은 죽는 게 좋을 때, 죽는 게 좋은데 죽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럼 죽을 뻔 한 거죠? 이게 애석한 거예요. 근데 죽을 뻔 한 일이 생겨서 죽게 되어 가는데 그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일이 풀립니다. '아이고!' 걱정합니다. 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살까봐. 그러다가 갑자기 딱 죽었습니다. 그 때, "야, 하마터면 살 뻔 했어! 살았으면 어떡할 뻔 했어 그래? 아이고, 죽었으니 다행이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 뻔 했어!"

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원수는 "아휴, 하마터면 살 뻔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스스로가 '내가 살 뻔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지요.
죽은 다음에나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죽은 다음에도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원혼(冤魂), 원망에 사로잡혀 하늘을 떠돌고 다니는 원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굿을 해서 달래가지고 저승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 뻔 했다'고 분명히 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바울과 스테반 같은 사람들…
몸이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깡충깡충 뛰며 "내가 살 뻔 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교통사고의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죽을 뻔 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났어요." 하며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살 뻔 했어요, 살 뻔 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목이 베이도록 결정된 뒤에 그렇게 깊이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살 뻔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죽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내일 아침 참수형 당한다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아휴, 이제 이 세상 고생 다 끝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다 마치고 이제는 내가 편안한 세월 살게 생겼다, 아이고 감사해라', 마치 추위에 떨다가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푹 잠이 들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제로원의 원리와 제3의 복, 액션', 이것은 '살 뻔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살 뻔 했다'고 말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뻔 했다'가 아니라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나서 좋은 게 아니라 '살 뻔 했는데 죽어서 좋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3복이 바로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봅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게 믿음이에요.
건강 때문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럼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게 불 뱀의 독이 내 마음에 침투해 오는 겁니다. 이럴 때 구리 뱀 장대를 보듯이 봐야 됩니다. 왜 구리 뱀 장대를 안 보고 불 뱀의 독에 중독이 돼서 죽어가나 생각했더니 그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불 뱀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갈까 했지만, 내 몸이 지금 독이 퍼져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몸에서 마음의 시선을 떼 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으로 독이 퍼져나가는 몸에서 시선을 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돈에 대한 염려의 독, 건강에 대한 염려의 독, 가정에 대한 염려의 독이 퍼져

나갈 때, 마음의 시선을 그 상황에서 떼서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어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함께 승천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 - 지금 현재도 지내고 계시잖아요? -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서 지내는 시간에. 그리고 쉴 새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말 하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노라 보면 내 마음이 하늘에 앉히운 바 된 상태에서 내 삶을 제3자 입장에서 내려다봅니다. 몸을 중심으로 내 삶에 대해서 제 3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관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활동하시는 그 빛의 역사를 관광하면 이 몸이 어떻게 먹고 입고 그리고 몸을 중심으로 한 삶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감사가 충만해 있을 때, 하늘에서 참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을 때, 제3의 복 액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1의 복은 내가 세상에 대해 제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먹잇감을 쫓아다니며 살던 내 마음이 하늘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켜지는 것입니다. '참여'지요.

그러면 제2의 복, 관찰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똑같아요. 3가지 복 모두 내가 세상에서 죽어 제로(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은 천국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활동장소, 내 마음의 목표,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비전이 다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 이게 소망이지요.
그 다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켜지셨지요?

세 번째 액션의 복은 아들 하나님, 주님이 켜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참여의 복은 사실은 내가 살아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복, 액션은 **성자**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서 켜지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마치 주님의 장갑인 것처럼 주님의 장막인 것처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액션, 왜 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하면, 참여 관찰 액션, 액션은 외래어 아닙니까? 그런데 액션(action)이라는 뜻을 찾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의도가 내포된 배우의 행동이나 사건', 배우의 행동이나 배우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 액션이에요.

그런데 이 '의도가 내포된'이라고 할 때의 이 의도가 누구의 의도입니까? 배우가 의도를 가지

고 액션을 행할 때 그 의도가 누구의 의도입니까? 배우 자신의 의도가 아니에요.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건 엑스트라로 나온 배우건 모든 배우의 액션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도가 감독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길을 걷는 행인이라는 엑스트라로, 행인 1은 곧바로 걸어간다, 행인 2는 걷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잠깐 멈칫한다, 행인 3은 떨어진 1000원 짜리를 줍는다. 이 사소한 행동조차도 다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공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 저 멀리 공원 벤치에 앉아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감독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하반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배우가 배역을 맡아서 액션을 취할 때 사는 액션을 취하든, 죽는 액션을 취하든, 거리를 걷는 액션을 취하든, 넘어지는 액션을 취하든, 대통령이 되는 액션을 취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감독의 의도대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다 이겁니다. 왜? 죽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는 것이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거니까,

감독의 의도대로만 표현된다고 한다면 배우는 성공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몸에 나타나는 액션이 그것이 사는 것이면 사는 것대로 죽는 것이면 죽는 것대로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대로, 사소한 행동이면 사소한 행동대로, 주님에 의한 액션인 한에는 다 오케이다, 다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c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산다.
감독은 배우 안에 들어가 살수는 없지만 감독의 의도가 배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3의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고 있는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하시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을 때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와 예수님이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차원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따라 다니던 그리스도였는데, 뒤 꼭지만 보고 다닌 그리스도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직접 행동을 하며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연합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내 몸이 움직이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담당한 행인1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다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살 뻔 했다'고 말 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본문 23절 하반부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라는 말이 나와요.
훨씬 더 좋다는 느낌, 지금 죽어서 내 영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될 어떤 영화와 부귀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나 개인에게는 좋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하는 모든 액션이 다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연합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참여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여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맛을 느끼십니다. 그 맛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맛을 느끼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는 건강하며 장수하는 것의 맛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과 건강의 맛 중에 어느 것이 탁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맛을 보고 나니까 돈 맛을 느끼지 못해요. 돈이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맛을 보고 났더니 승진의 맛과 감투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맛을 원하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맛을 느끼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애인 맛이 없고 애인 맛을 바라게 되지를 않아요. 애인을 만나세요, 만나되 하나님 맛으로 기쁜 마음이 되어서 만나는 겁니다. 애인을 만나서 비로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애인을 만나서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면 애인의 맛을 느끼는 거죠, 돈을 얻어서 행복해진다면 돈 맛을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맛으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상태에서 돈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만지는 거예요. 돈이 먹고 싶지 않아요. 단지 내 마음의 기쁨은 이미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뻐해서 더 이상 돈 맛을 원하지 않을 때, 돈 버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 이겁니다. 더 이상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맛으로 배불렀을 때 자식을 키우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승진하고 감투 쓰고 이런 것에 맛을 못 느낄 만큼 하나님 아버지 맛으로 가득가득 배가 불렀을 때 승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돈 맛을 갈망하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돈 좋아한다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돈 벌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 맛 때문에 건강이 먹고 싶어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에게 건강을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공생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제자로 부르기 위한 미끼예요. 쉽게 말하면 미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믿음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으면 복이 있는 거죠.

어제 말씀 드렸듯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곧바로 마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왜? 몸까지 건강하면 너무 자고해져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 질까봐…

어떻게 액션의 제3의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맛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더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내가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이제 영화촬영에 들어가서 액션을 시작하게 될 때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편견을 다 없애서 제로로 만들어야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갈망하는 게 있으면, 소원하는 게 있는 한에는 내 속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한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심의 복이 액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액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의 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여러분,
이제 참여의 복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액션이 일어나는 것이 왜 복입니까? 그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내가 한 행동의 결과들이에요. 내가 자식을 만지면 자식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말입니다.
저는 미국 프린스턴에 visiting scholar로 가 있을 때 샀던 그 차를 토요다 캠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12년 되었습니다. 그 캠리가 한국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정말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소중하게 다룬다고 손을 댈 때마다 망가져요. 손대면 유리에 흠집이 생기고 손만 대면 뭐가 망가지기 일쑤고 손대면 망가져요.

그런데 대면 망가지는 것을 영화 찍을 때 뭐라고 하지요? 감독의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는 액

션을 뭐라고 합니까?
NG 라고 그래요, NG. NG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No Good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되어 지지 않는 나의 모든 행동은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악에서 연유된 것이고 No Good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마다 No Good인데 자식을 대할 때 Good을 바라겠습니까? 내 액션이 No Good인데…

아내와 남편이 관계할 때 Good이 나오겠습니까? No Good이에요. NG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NG로만 점철되어 가는 겁니다.
온전한 참여의 복을 통하여 더 이상 세상에서 먹고 싶은 맛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면 액션을 행하는 것마다 Good, OK! OK가 무엇의 준 말이죠? everything all right이 OK의 뜻입니다.

내가 자식을 관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액션이 나타나요. everything OK 아닙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자식을 통하여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배가 충분히 불렀을 때 그때 자식을 대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의 액션으로 나올 때 everything OK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OK, 내가 하는 행동도 OK,

사업장에 가도 마찬가집니다.
돈 맛으로 배 부르려고 하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맛으로 배불렀을 때 그리스도의 액션이 나타나면서 everything OK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돈 맛에 굶주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everything No Good이에요. NG 예요. 계속해서 NG가 하루 살면 산만큼 NG, 이틀 살면 이틀만큼 NG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는 끊임없는 NG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행인1, 2, 3과 같은 사소한 행동까지도 주인공으로써 클라이막스에서 행하는 대단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행동까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액션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어렵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불가능한 축복이 내가 손대고 만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액션이 되어서 everything OK가 되는 NG인생을 떠나는 그러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부처님도 못하고 공자님도 못해요. 과학자도 못하고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박사님도 못해요. 이명박 대통령도 못하고 빌 게이츠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임금님이라도 못해요.

그런데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그리스도를 밝히 보면서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찢기시고 피흘리시며 죽어야 됐다, 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여의 복이 주어지면서 관찰의 복이 주어지면서 액션의 복으로 이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러니까 복음이지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식을 기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공부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건강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기 위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인색하겠습니까?
그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참여의 복이 주어지고, 관찰의 복이 주어지고, 액션의 복이 주어지고, 이 세상은 거저먹기인데 이 것 하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불교에서 평생을 수련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걸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몸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승천하시는 예수그리스도와 연합해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활동장소가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 세상에서 해탈이 일어나 버립니다. 해탈만이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해탈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無)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무(無), 공(空), 허(虛).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수련해서 기껏 세상을 떠나는 것 하나를 얻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면 마음이 세상에서 죽어서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창조주 되신 분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everything OK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 나가신다는데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 하나를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투자를 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시가 아무리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눈꺼풀에 뭐가 끼듯이 이 세상의 염려들로 시시각각 침투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몸이 살고 있는 한에는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요. 가벼운 수고예요. 가벼운 짐이에요.
십자가를 밝히 보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밝히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약속되었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느끼는 모든 것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아버지 되심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염려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유 없는 기쁨에 내 마음이 충만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 떠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하늘에 앉은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속에서 아버지의 움직이심이 보이고 내 몸 옆에 있는 나무에서 내 옆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서 아버지의 움직이심이 보이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서 아버지의 활동하심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며 감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더 이상 세상에서 먹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되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게 뜻을 둔다는 겁니다. 의도를 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뜻이 생겨나면서 먹고 싶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게 하시고, 먹고 싶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기르게 하시고, 먹고 싶은 것이 없는데도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나를 학교로 보내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액션이 일어날 때 NG인생이 끝나고 everything OK로 승인받는 복된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로(0) 원(1)의 원리, 어떡하든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 제로가 되자,
생각 제로, 꿈과 소원 제로, 맛보고 싶어 함이 제로, 모든 것이 세상에서 죽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에서 켜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서 켜지고, 주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켜지시고 놀라운 제로원(0,1)의 축복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주님과 죽음에서 연합하기만 하면 제1, 2, 3의 복이 연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돈 염려에 마음의 시선이 가려지고 건강염려에 가려지고 미래의 염려에 가려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불로 모든 염려를 태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 제1의 연합이 일어남으로써 삼박자 축복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복된 하늘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